월간 PIGHEAD LAB

피그헤드랩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34호
2025. 6



9 771059 028004 02
ISSN 3059-0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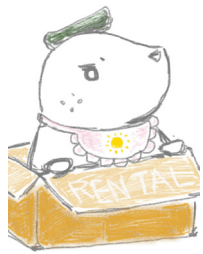
오종원_ 로컬라이드 강진(by 와이크)
서른두번째 원고

이채연_ 엄마 이모 나 경주 여행 2
서른번째 원고

X_ 그 곳에 가고싶다 : 유토피아 (Youtopia)
열두번째 원고

김희진_ 받침 굿
스물한번째 원고

로컬라이드 강진(by 와이크)



오 종 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강진을 가게 되었다. 로컬라이드 강진이라는 프로그램이다. 내가 최근 자전거 여행을 즐기며 흥미를 가진 와이크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라남도 강진군(이하 강진)을 배경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해남에서도 진행된 바 있었고 그때 너무나도 가고 싶었다. 특히나 작년은 내가 한참 자전거 투어와 캠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자전거야 당시에도 두어 대가 넘었지만, '자전거에 텐트를 매고 가겠어!'라는 생각에 여행에 특화된 자전거를 구하느냐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마침내 올해에는 그래블 자전거를 기추하게 되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투어는 팸투어라고 해서, 이 <로컬라이드 강진>이라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홍보차원에서 먼저 체험을 하고 후기를 올리는 기회이다. 서울에서 전세 버스를 이용해 강진에 도착, 투어와 캠핑으로 1박을 하고 문화투어도 덧붙여져 있었다.(이번 글에 문화투어는 일부만 포함하였다.)

강진이 전라남도 끝, 남해에 인접해 있음을 생각하면 버스로 오가는 시간도 짧지 않을 것이기에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와이크에서 준비한 전세 버스의 서비스는 훌륭했고 또 걱정했던 것보다 빠르게 서울과 강진을 오갈 수 있었다.



사진1_ 와이크에서 제공한 강진 스탬프 투어 북 ⓒ 와이크

사진2_ 이번 여행을 함께한 콘돌 비비오 그래블 자전거



와이크가 제안한 코스는 3가지였다. 강진의 남단을 달리는 41km코스, 북단을 크게 도는 60km 이 두코스를 다 도는 92km코스. 참조 이미지인 스트라바 지도를 참조해도 되겠지만 나는 92km를 달렸다. 이 코스가 강진을 한바퀴 돌아보게 구성되어서, 이 참에 온 것 한번에 다 보자 싶었다. 또 이게 일종의 스탬프 투어였기에 주어진 시간 내 웬만하면 도장을 다 찍어보고 싶었다.

코스는 강진의 중심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시작하여 북쪽, 넓게 펼쳐진 차밭을 지나간다. 서쪽으로 병영 성지를, 남쪽으로는 가우도를 지난다. 다시 출발지인 생태공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잘 포장되어 있는 자전거길이다. 여담으로 강진과 해남은 '자전거관광도로'라는 자전거 길로 연결되어 있다. 애초 두 지역은 붙어 있는데 산자락으로 경계가 쳐져 있지만 이웃 동네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지 두 지역을 이은 자전거 관광도로는 아스팔트 상태도 좋고 경치도 꽤나 좋은 편이었다. 강진만 생태공원부터 잘 포장된 자전거 도로를 타고 해남 땅끝마을 인근까지 바로 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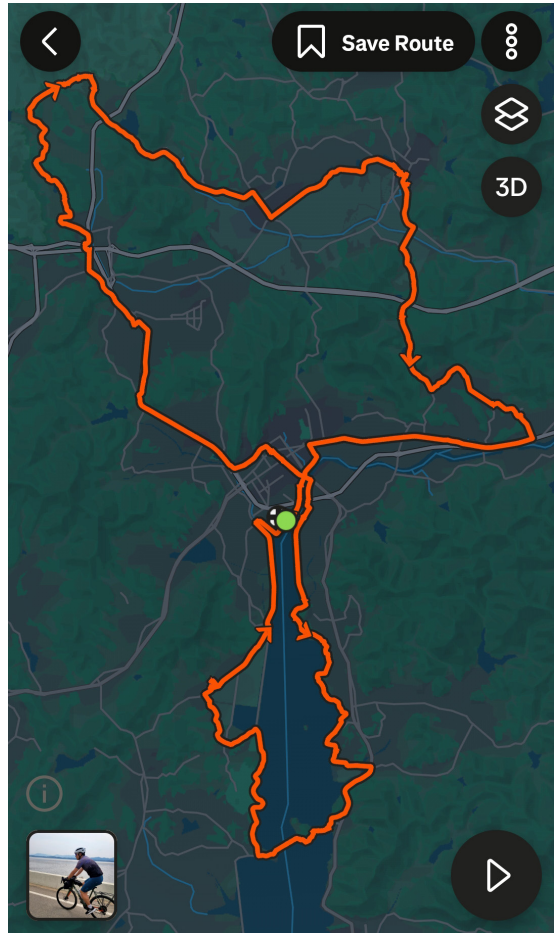


사진3_ 가운데 생태공원에서 시작하여 강진을 한바퀴 도는 92km코스. ⓒ 스트라바

시작점인 강진만 생태공원은 갈대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만이라는 표현에 맞게 남해의 바닷물이 강진으로 깊숙이 들어와 강과 만나는 형태이다. 퇴적지겠지. 갈대밭이 멀리 뻗은 넓은 평야 지대이고, 그래서 인근에 군청을 포함한 마을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새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전망대가 보였는데 강진의 습지에는 백조가 찾아온다고 한다. 그 덕분인지 전망대는 백조(혹은 기러기)의 형상을 꽤 잘 뽑아낸 느낌이었다.



사진4_ 백조모양 조형물 앞에서

생태공원을 나가자마자 마을을 들릴 수 있었다. 커피와 화장실이 필요해서 카페부터 찾았다. 요즘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카페가 없는 곳이 없었다. 오죽하면 동네 구멍가게 슈퍼마켓 역할을 카페가 병행하기도 한다. 슈퍼마켓이 카페를 병행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만. 이곳의 카페도 유명 프렌차이즈인 카페베네의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도 달고 있었다.

한 켠에 “옛 모란다방”이라고 쓰여져 있다. 기존 다방이 프렌차이즈 카페로 바뀐 것인가. 기존 카페 프렌차이즈와는 조금 다른 인테리어에 견과류 같은 간식도 한 켠에서 팔고 있었다. 입구 옆에 “예로부터 돈 잘 버는 자리”라고 기운 받아 가시라고 써놓은 것이 꽤나 귀여웠다.

커피를 보충하고 북서쪽으로 향한다. 강진의 지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산자락이 파도처럼 밀려 내려오는 형태이다. 북쪽으로부터 월출산 등의 높은 산부터 잔잔한 언덕들이 내려오고 남쪽은 바다와 맞닿은 평야인 것이다. 이는 후술할, 이곳에 과거 성과 병영이 들어서게 된 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강진의 북쪽은 어느정도 고지대라는 뜻이고 탈만은 하지만

처음부터 땀을 빼는 언덕들이 쭉 이어졌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 누가 정원을 예쁘게 가꾸었나 싶었다. 푸른 녹차밭이 펼쳐진다. 차에 조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녹차 재배지가 보성인 것은 알고 있다. 지도로 보면 강진군 옆에는 장흥군, 그리고 그 옆에 보성군이 있다. 그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직선으로만 치면 몇 십km 되지 않는다.(그래서 해남에서 보성정도까지는 마음먹으면 자전거로도 갈수 있는 거리이다.)



사진5_ 강진 녹차밭

또 하나, 우리나라에 산 없는 곳이 어딨겠냐 싶지만 국내 지형적 특성으로 남쪽은 수많은 언덕과 자잘한 크기의 산들로 빼곡한 곳이다. 적당한 고도, 또 해풍이 있어서 그런지 전통적으로 차를 재배하기 좋은 곳인가 보다. 언덕들을 계속 올라야 해서 힘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바람이 꽤나 시원했고 그렇다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느낌도 아니었다. 앞에 보이는 큰 산이 월출산이라 하는데, 그 밑 자락으로 차밭이 빼곡히 늘어서 있는 게 상당히 장관이었다. 그리고 이 차밭을 보러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것 같았다.
“강진 다원” 와이크가 준비한 도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여기도 차가 유명한가 보다. 도장을 찍고 동쪽으로 내려간다. 푸르른 녹차밭을 내려가 깎아내리고 있는 산자락을 지나, 다음 포인트는 전라

병영 성지라고 한다. 조선 때 전라병영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앞서 강진의 지역을 설명하였지만 강진은 북서쪽은 산과 언덕들이 있고, 강진 병영은 이 산자락 사이에 위치해 있다. 산과 산 사이, 평지와 강을 를 막고 있는 형태이다. 남해바다에서 민물을 따라 들어오면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에 병영이 세워져 있다. 남쪽의 해안과 인접한 민가는 내주더라도 천연 성벽인 산자락들 위로, 즉 내륙으로는 올려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와, 반대로 우리 군이 강을 따라 바로 남해로 나아갈 수도 있는 전략적 요충지처럼 느껴졌다. 조상들의 현명함이란!

이곳의 특산물은 돼지불고기이다. 인터넷에 의미를 찾아보니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 외에 별다른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돼지 불고기야 사실 양념 된 돼지고기 정도의 맛있는 음식인데, 갑옷을 입고 있는 돼지캐릭터가 무척이나 귀여웠다. 불쌍함과 동시에 묘하게 귀여운 돼지 캐릭터를 보며 심플하게 디자인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근에는 지역 축제로 돼지 불고기 축제를 한다는 현수막들을 볼 수 있었는데, 돼지 불고기로 어떻게 축제를 만들 수 있을까 제법 궁금해지는 것이었다.

또 이곳은 교과서에 나온 하멜이 유배를 온 곳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하멜양조장(건물 벽면에는 병영을 의미하는 Barrack이 크게 쓰여 있다.)이라고 로컬 술집이 있었는데 강진과 협력한 서울 출신의 주류업체가 함께



사진6_ 강진 병영성지. 사진 상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



사진7_ 하멜 양조장의 IPA

개발한 것이라고 한다(전통 양조장은 따로 있는 듯 했다). 술 맛이 매우 좋았는데 맥주는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느낌이었고 막걸리가 특히나 인상적이었다. 한입 들이키자 마자 시원하고 향긋한 과실향(사과향으로 느껴진다)이 감돌아서 무척이나 산뜻했다. 너무 맘에 든 나머지 다음날 서울에 가져왔는데 그 과실향이 사라지고 말았다. 괜히 아끼다 놓치는 법이다.

이제 남쪽으로 향한다. 쭉 내려가다 보니 칠량옹기라는 곳을 들릴 수 있었다. 코스 상으로는 도장만 찍고 시간관계상 바로 지나 갔어야 했으나, 다행히 다음날 아침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강진은 옛부터 옹기가 유명했다고 하는데, 근대까지도 강진 옹기하면 알아주고 많이 거래되었다고 한다. 무지인인 내가 봐도 강진군의 바닷가는 민물과 바다가 교류하는 지점이라 유기물이 풍부하고 갯벌이 건강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바닷가를 달리는 내내 조금만 멈춰도 갯벌에 넘쳐나는 게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갯벌에서 채취한 흙으로 옹기를 만들면 얼마나 건강한 토기가 나올까 상상해 볼 수 있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과서 등에서나 볼 것 같았던 전통 가마인 오름 가마를 실제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오름 가마라는 것도 이 글을 쓰면서 알게 되었다.) 산자락을 이용해서 비스듬히 길쭉하게 가마를 지어, 밑에서 땐 불의 열기가 가마의 상승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며 도



사진8_ 옹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칠량옹기

자기를 구워내는 전통가마로 알고 있다. 그 규모는 꽤나 크다. 이 마을에는 이런 가마가 4개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쓰는 가마 1개밖에 안남았다고 하였다.

설명 중에 은근히, 옹기 장인으로써 현대 세라믹 도자에 비교될 수 밖에 없었던 속상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곤 하였다. 지금은 작품성 있는 옹기 위주로 제작한다고 하였는데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현실적인 지점에서 얼마나 맘고생을 했을지, 생활용품과 자부심의 경계에서, 사장되어 가는 전통의 속상함을 상상해본다.

개인적으로, 손님용으로 내놓은 거친 질감의 찻잔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데, 팔라고 말씀드리니 본인들 보기에 완성작이 아니라 팔지 않겠다고 하시더더라. 판매용 도자보다 그게 더 매력이 있다고 느꼈는데.

마지막으로 가우도를 들리게 되었다. 사실 자전거 투어로는 이미 시간이 촉박하여(투어 시간이 약 5시간 정도 할애되었는데, 초반에 조금 여유를 부렸더니 나중엔 다급하였다.) 이미 서둘려 지나치기 바빴다.

가우도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오로지 걸어야 한다고 하였다. 거리는 대략

2km, 30여분은 걸어야 하는 곳이다. 다급히 뛰기 바빴다. 그러면서도 가볍게 둘러보는데, 다리나 섬의 조형물들이 너무 현대화되어 있어서 아쉽게 느껴졌다. 전반적으로 걷기에는 좋았고 짚라인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강진의 갯벌들이 자연의 생태를 잔뜩 간직하고 있었고 민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지점도 넓은 갈대들과 함께 제법 깨끗하였기에(어촌이나 관광지로 뒤덮이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었기에) 자연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해도 좋지 않았을까 싶었다. 남해는 아직까지 관광화가 덜 되어서 그런지 바닷가가 적당한 어촌마을 정도만 있어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이다.

아무튼 이렇게 달리고 다시 강진군 생태공원으로 복귀하였다. 마지막엔 생태공원에서 약 10여 km전 다산 박물관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스탬프 유무만 확인하고 지나쳤야 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도 건물의 규모는 꽤 컸고 도로와 박물관을 잇는 나지막한 길과 정원, 정자들은 제법 깔끔하게 잘 운영되는 느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번 코스는 애초에 아침 일찍부터 출발했거나 혹은 1박 2일정도로 달렸다면 강진을 넉넉하게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살짝 아쉬움도 없지 않다.

정리하자면 자전거에 입문한지 얼마 안되는 정도만 아니라면 무난하게 다닐 수 있는 수준. 투어 경험이 한 두번이라도 있으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한다. 아예 쌩 초보에게는 다소 무리감이 있다. 해당 코스 상으로는 그래블 자전거나 혹은 타이어가 두꺼운 자전거를 추천한다. 미니벨로는 1박 2일로 잡으면 적당하다.

북쪽에 차밭 가는 언덕들만 열심히 오르면 크게 어려울 것도 없다. 차들도 배려심이 좋았고 또 바람도 잘 불어주어 그렇게 힘들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또한 주차를 할 곳도, 캠핑을 할만한 곳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았다. 무엇보다 어떠한 한 '지역'을 그래도 하루 정도 안에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추천요소이다. 딱 이정도 거리가 적당선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한번 남해의 풍부한 갯벌, 그리고 갈대밭을 보며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치유를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다.


100%

엄마 이모 나 경주 여행 2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2025년 5월호의 <엄마 이모 나 경주여행1>에 이은 두번째 이야기.

로컬푸드

여행 첫날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트에 들러 간식으로 먹을 과일을 사고, 로컬 푸드(직거래 지역농산물 코너)구경하기로 했다. 엄마는 꽤 큰 텃밭을 하시는데, 직접 농사 지은 농산물을 로컬푸드로 납품한다. 그래서 여행 온 경주에서 로컬푸드 시장조사를 하고 싶어했다. 엄마는 꼼꼼하게 매대의 농산물의 가격과 품목을 확인하고 배울점은 뭐가 없을까 쭉 둘러 봤다. 가끔 엄마와 통화 할 때 보면, 엄마의 기분은 로컬푸드에서의 판매실적에 따라 정해 지는 것 같았다. 자식같이 키운 귀한 아이(농산물)들이 마트라는 실전무대에 나가서 새 주인 찾아가지 못하면 의기소침 해졌고, 아이들이 주인을 찾아 많이 나가버린 날은 목소리가 올라 갔다. 이렇게 변하는 기분은 나도 공감이 많이 되었다. 내 새끼인 작업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쓸모를 찾은 날은 몹시 감동해서 들떠 있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농산물에 비해 예술은 직접적인 수요와 필요가 있는 편이 아니 여서, 내 작업이 관심 받아서 들떠 있는 날은 별로 없다. 잠깐 옆길로 새어 내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한때 내 작업(작품)에 자신이 없었고, 하찮아 보여서 작업을 접었었다. 그러면서 시작한 일이 베이커리다. 빵 만들기 과정은 입체 작업에서 조소와 비슷하다. 미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익숙하고,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다. 거기다 결과물인 빵은 돈으로 교환이 되고, 맛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환영 받았다. 먹을 것을

마다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좋은 일을 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의 나는 어쩌다 보니, 빵을 만들지 않고 다시 작업을 하고 있다. 퇴사하고 한량을 선택했다. 개미에서 베짱이가 되었다. '어쩌다'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내 안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의지가 빵을 만들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지보다는 컸던 것 같다. 결국 다시 작업의 길로 이끈 것 같다.

숙소에서

첫날 숙소는 온돌방이다. 들어 가자마자 텔레비젼을 켜고 이불을 폈고 모두 뜨끈한 방에 몸을 지졌다. 오늘밤 TV리모컨은 엄마와 이모에게 양보했다. 리모컨은 어릴 때는 내 차지였다. 이제 나는 리모컨에 미련이 없다. 제법 큰 어른 되었으니까~ 엄마가 채널을 돌리다가 고향소식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니 바로 고정한다. 고향소식에는 관심 없는 나는 핸드폰으로 내일 일정과 맛집 정보를 찾아 본 뒤 샤워했다. 씻고 나오니 텔레비젼 화면은 트로트 대결 프로그램으로 바뀌 있었다. 엄마와 이모의 눈동자는 반짝 반짝했고 완전 집중모드로 몰입 해 있었다. 흥얼거리며 추임새를 넣기도 했다. 그런데 서로 좋아하는 가수가 달라서, 상대편 가수를 디스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매력을 어필했다. 소녀시절로 돌아간 듯한 활력이 느껴졌다. 좋다. 역시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명랑 해진다.

다음날 아침으로 맥도날드의 아침 메뉴인 맥모닝을 먹을 계획이었다. 이 숙소로 정한 이유 중 하나가 맥도날드가 가까워서다. 맥모닝 좋아하는데, 내가 사는 동네에는 맥도날드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아쉬웠었다. 이번 기회로 먹어야 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다. 숙소에서 조식으로 샐러드바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만구천원이다. 부폐식 식단을 좋아하지 않는데다, 아침으로 이만원에 가까운 돈을 쓰기가 아까웠다. 혹시 오해 하실 분 있을지도 모르니 말하는데, 엄마와 이모에게 만구천원을 쓰는게 아깝다는 뜻이 아니다. 가성비가 없다는 뜻이다! 새로운 메뉴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맥모닝을 포장 해와서 숙소에서 먹었다. 평소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엄마와 이모가 밥을 고집 하실 까봐 걱정 했는데, 잘 먹었다. 맛있고, 가

격도 좋고, 간편하고, 영양가도 있어 보인다며.
처음 만날 때 부터 이모의 백팩은 불룩했다. 첫날 숙소에서 그것을 냉장고에 넣었었다. 그때 본 그것은 검정 비닐봉지에 쌓인 둥근 무언가 였다. 여러 겹의 비닐봉지에 싸여 극비로 보관되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으로 맥모닝을 먹을 때 이모가 냉장고에서 그 검정 봉다리를 꺼냈다. 겹겹이 싸인 비닐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벗겨졌다. 두둥..... 그것은 바로 '김치'였다. 때는 바야흐로 김장철 이였다. 전국민이 갓 김장한 김치를 먹는 시즌인 것이다. 여행날짜가 12월 초로 정해진 것은 김장을 마쳐야 편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다는 엄마의 의견이 있어서 이다. 이모는 김장 김치가 이제 막~ 나와서 딱~ 맛있을 때 인데,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갓 만든 김장김치를 맛 볼 수 없는게 아쉬워서 들고 왔다고 한다. 어른들의 김치사랑은 참... 대단하다! 사실 나는 숙소를 가득 채운 김치냄새가 신경 쓰였다. 하지만 맥모닝 한입 먹고 비닐장갑 낀 손으로 김치 쭉 찢어서 맛있게 먹는 엄마와 이모를 보니 그냥 맛있게 잘 먹고, 환기 잘 시키고 나가야 겠구나 했다. 이 김치는 여행하는 동안 낮에는 이모의 가방 안에 넣어 소중히 잘 모시고 다녔고, 밤에는 야식으로 먹었고, 숙소 냉장고에서 보관되었다.
두번째 숙소는 앞서 말한대로 일명 감성 한옥숙소다. 일찍 체크인해서 이쁘고 비싼 숙소를 즐기기로 했다. 체크인 시작시간인 오후 3시 쯤 도착해서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그대로 텔레비젼을 보며 뒹굴뒹굴하며 보냈다. 저녁으로 치킨과 맥주를 먹기로 했다. 치킨은 낮에 재래시장을 구경하다가 맛집으로 보이는 곳이 있어서 지도에 저장해 두었다. 숙소에서 걸어서 20분거리다. 귀찮아서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시킬까 싶기도 했지만, 맛집을 향한 나의 호기심과 열정이 길을 나서게 했다. 치킨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옛날 생각이 났다. 내가 뭔가 먹고 싶다고 말하면 엄마는 힘들게 일하고 온 뒤라도, 바쁜일이 있더라도, 엄마는 바로 만들어 주거나 시장에 가서 사왔다. 생각 해보면 정말 귀찮았을 텐데 엄마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다. 지금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덕분에 나는 아주....튼실하고 후덕한 아이로 자랐다.

치킨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로 마트에 들러 맥주를 샀다. 그냥 익숙한 국산 맥주를 살까 하다가 뭔가 디자인이 멋져 보이고 비싼 아이로 골랐다. 특별한 날이니까! 치킨과 맥주를 테이블에 셋팅 해 놓으니, 엄마와 이모가 다시 김치를 꺼낸다. 김치에 치킨을 싸서 먹는다 '김치는 없으면 못살아 정말 못살아~' (김치주제가, 노래:정광태, 1994)라는 노래가 저절로 내 머리안에서 재생되었다. 김치 없으면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정말 있구나! 예전에 엄마가 우리집에 왔을 때 냉장고 안에 작디 작은 김치통을 보고 "너네는 도대체 뭐 먹고 사냐?"했던 말이 떠올랐다.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고기도 과일도 먹어요!! 엄마 걱정 말어"라고 대답 했던 것 같다.

텔레비젼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TV가 던져주는 화제에 맞추어 이야기 나누며 치킨을 먹었다. 살짝 의견차이가 있기도 했다. 그 때는12.3계엄 사건이 일어 난지 얼마 안된 시국이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겠으나, 경상도에 사는 엄마와 이모 주변 어른들이 계엄을 대하는 태도와 분위기는 내 주변과는 많이 달랐다. 평화로운 여행을 위해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 말고 다른 화제로 유도 했다.

평소 이모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병상 간이 침대에서 쪽잠 자고, 제대로 음식을 차려 놓고 먹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치킨과 맥주를 탁자에 펴놓고 편하게 방바닥에 앉아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다고 했다. 정말 흠뻑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너무나 일상스러워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작은 여유를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즐기는 이모의 얼굴을 보니 반성이 되었다.

숙소의 히노끼 욕탕은 성인 3-4명이 들어 갈 정도로 큰 사이즈다. 이 숙소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욕탕이 컸기 때문이다. 서로 수건으로 양머리 해주고, 욕탕에 같이 들어가서 음료도 마시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이 좋은 자매와 모녀. 한번쯤은 드라마에서 봤을 법한 장면을 상상했었다. 그런데 내가 욕탕에 들어가자고 하자 엄마는 싫다고 했다. 목욕탕 좋아하는 엄마가 왜?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또 평화로운 여행을 위해서 엄마의 의견을 존중했다. 엄마가 안 한다고 해서 나 혼자만 즐기기엔 아쉽고, 숙박비가 좀 아깝다고 느

껴졌다. 그래도 나 혼자라도 잘 즐기다 가야지 숙박비가 아깝지 않지 하며 욕탕에 들어갔다. 욕탕이 컸다. 참 호사로웠다. 전문직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펜트하우스의 수영장 같은 욕조에서 들어가 피로를 푸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상상되었댜. 내 인생에 언제 이렇게 큰 욕조를 혼자 차지해 보겠어 기회다 싶었다. 뜨끈하게 몸이 녹아 들었다. 조금 뒤 이모가 들어왔다. 혼자도 좋았지만 반가웠다. 이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조금 뒤 엄마가 들어왔다. 목욕탕 좋아하는 엄마가 들어 오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하하 계획 성공했다. 뿌듯했다!
욕탕 유리창에 살이 있는 대로 다 늘어진 할머니 둘과 칙칙하고 밋밋한 몸의 중년의 여자 하나가 비쳐졌다.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했던 로망과 상상이 파괴된다. 예상은 했지만 말이다.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번생에서는 우아한 여성들의 반신욕 파티는 없겠구나!
다음날 조식으로 빵과 샐러드 반숙계란이 이쁘게 셋팅 되어 나왔다. 이모가 “와 아~ 이레 이쁜 걸 어째 먹노? 채연이 덕분에 이런 것도 먹어보네” 했다. 잠깐의 감탄과 칭찬의 시간 뒤, 엄마와 이모는 어제 남은 치킨과 김치을 꺼냈다. “아깝다 다 먹고 가자”

다음에 또 가자
아침을 먹고 숙소 근처 대릉원 주변을 산책했다. 걸으며 나무와 풀, 하늘을 보면서 계절을 변화를 보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엄마와 이모는 산골마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텃밭을 일을 해서 자연을 보고 할말이 많았다.
저 멀리 우리의 조상님이 탄탄하게 쌓은 구불구불한 실루엣의 왕릉이 보인다. 높아 보이지만 위압감이 없이 동쪽 땅을 휘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오랜 시간을 버텨온 높이 자란 나무와 하늘이 있다. 이 풍경은 몇 년 후에도 변하지 않고 이 자리를 있을 것이고, 나는 이 풍경을 기억속에 꽤 오래 간직 할 것 같았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나와 엄마는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모는 일하고 있는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황남빵을 샀다. 기념품을 들고 각자의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 졌다.



사진1_대릉원 공원에서 활짝 웃고 있는 엄마와 이모. 집에 있을 때 보다 크게 웃는 것 같다.

숙소에서 막 퇴실하려고 하는데 숙소 사장이 케이크를 주셨다. 퇴실하고 나가는 길이라, 먹을 수 없어서 달달한거 좋아하는 아빠 드리기로 하고 챙겼다. 엄마와 이모는 “젊은 사람이 어째 이렇게 이쁘고 깔끔하게 방을 만들었냐고 잘 지내고 간다”고 했다. 궁디 팡팡 할 것 같은 기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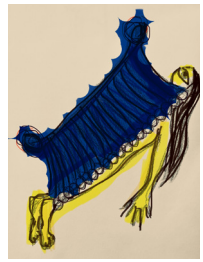
아빠가 울산에서 엄마와 이모를 데리러 오시기로 했다. 미리 나가서 아빠가 오기로 한 위치 근처 왕릉에 갔다. 문화재 관람을 했고, 사진을 찍고 다음을 기약했다. “우리 다음에 또 여행가자!”라고 엄마와 이모가 앞다투어 말했다. 하지만 내마음은 이랬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이번에 더 길게 더 화끈하게 갈 껄”

엄마와 이모와 헤어지고 그간 채우지 못했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카페에 갔다. 지나가다 본 곳인데 맛집 예감이 강하게 들었지만 엄마와 이모가 가기에는 인테리어가 불편해 보여서 가지 않았다. 온전히 커피에 집중하면서 마셨다. 맛있다! 맛있는 거 혼자 먹어서 엄마와 이모에게 미안했다. 홀짝이고 있는데 커피 마시며 졸았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커피 맛에 집중 할 수가 없었다. 창밖으로 뒹구는 낙엽이 보였다. 눈물이 났다. 음식을 먹다가 흘리고, 전시를 보다가 조는 엄마가 생각났다. 집에 가면 까먹겠지만.



그림2_2025년 설 고향집에서, 엄마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 곳에 가고싶다 : 유토피아 (Youtopia)



X
작가 & 전시기획자

“.... 네가 일어나는 곳에서 나도 같이 일어나. 네가 잠이 드는 곳에서 나도 같이 잠이 들어. 네가 숨쉬는 곳에 내가 같이 숨쉬고 있어.... 바로 너가 나에겐 유토피아야... ”

당신은 사랑을 해보았나?
만약 사랑을 했다면 그것이 사랑인지 연애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
타인에게 희생을 하면서 어떠한 것도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일 것이다.
사랑은 매우 오래간다고 믿는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늘 요구하는 결혼은 서로를 위한 헌신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 헌신도 두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결혼은 자식을 양육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껍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우여곡절 속에서 내 인생에 몇 몇이 그들이 살아온 삶과 사랑을 얘기하고 떠나갔다.

로진

로진(Rosine)이라는 중년 여성을 프랑스 유학시 만나 잠시 친구로 지냈었다. 로진은 당시 50대 중반으로 혼자 살고있었고 내가 누드 모델로 활동하는 데상 수업에 종종 얼굴을 비취곤 했다. 로진은 나이가 들었지만 매우 아름다운 얼굴의 여성으로 젊었을 때 한 미모를 했다고 생각했다. 나보다 키도 작고 안경을 써서 프랑스 동화 속의 요정같아 보였다. 볼 때마다 아름다운 미소를 띠며 인사를 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늘 생기발랄함이 느껴졌다.

로진과 나는 점점 가까워지며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였다. 서로 문자를 주고 받거나 전화를 하면서 일상을 조금씩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여름 방학을 앞 둔 어느 날 우리는 시내에서 만났고 커피를 같이 마셨다. 올 여름 방학은 내가 집에서 논문을 쓰며 보낸다고 얘기하자, 그녀는 나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 데 놀러오고 싶은지 물어봤다. 난 흔쾌이 응했고 약속 날 로진은 자기 차로 날 데리러 왔다. 시내를 빠져나와 10분 정도 달리니 그녀와 똑 닮은 작고 아담한 프랑스 시골의 집이 나왔다. 1층 뒷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우리는 거기서 차와 그녀가 전 날에 만든 사과 절임(Compote)을 먹었다. 그리고 가까운 강으로 가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1 층 거실로 들어가니 이사온 지 얼마 안됐는지 벽지에 장식을 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벽에는 프랑스 어로 “Il faut être toujours optimiste dans la vie.” 라고 적혀 있었다. 한국어로는 “삶을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2층에 올라갔는 데 2층 방에는 박스가 가득했다. 대부분 책과 사진이 들어있었고 사진은 흑백이 많았다. 내가 사진을 넘겨보니 로진의 지난 날들을 볼 수 있었다. 사진 속에 종종 나오는 한 얼굴이 있었는데, 바로 그녀가 가끔 언급하던 암으로 죽은 남자친구였다.

25년 넘게 같이 살은 남자 친구였는데 로진은 대장암으로 먼저 세상을 떴다고 얘기하였다. 그와는 앙제(Anger) 도시의 미술 학교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후 매서운 아버지의 눈을 피해 졸업 후 로진은 남자친구를 따라 앙제를 떠나 프랑스 여기저기를 살면서 보헤미안적 생활을 했다. 남자친구는 음악가로 활동했고 밴드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작곡을 했다고 한다. 그녀에게 한 번 결혼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로진이 거절했다고 한다. 로진과 남자친구는 프랑스 68운동 이후의 세대인지라 결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동거법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 종족이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오랜 동거 끝에 결혼 신청을 한 것은 정말 로진을 사랑해서였을 것이다.

로진은 남자 친구와 같이 서아프리카 세네갈(Senegal)을 여행한 기억은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세네갈의 음악과 세네갈 사람의 정, 사막에서 수 많은 별을 보며 남자친구와 보낸 밤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의 큰 아픔은 로진과 남자친구의 직업이나 부모 탓이 아니었다. 바로 남자친구와 로진이 남프랑승의 한 소도시에서 살면서 맞닥뜨린 부정부패와 오랜 소송이였다. 남자친구는 지방 법원에 고소하며 정의를 찾으려고 했지만 지방법원 또한 부패로 계속 거절이 되며 남자 친구의 몸과 맘은 병들어 갔다. 이후 암에 걸리며 투병을 하게 된 남자친구를 로진은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켰다. 남자친구는 병원의 투병 기간에도 단식을 하면서 투쟁을 했고 결국 프랑스 중앙법원으로 소송을 한 후에야 그는 승소를 하며 정의를 찾게 되었다. 특히 그의 단식 투병은 병원의 의사도 감탄을 했고 응원을 했다고 한다. 승소 후 결국 남자친구는 사망을 하게 되며 사랑하는 로진을 떠나게 되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바로 로진이 1 층 벽에 쓴 글귀였다.

“로진,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삶을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

로진은 그 날 오후 남자 친구의 얘기를 계속하였다.

“...내 사랑은 늘 인생을 사랑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때도 콧노래를 불렀고 밥을 먹을 때도 늘 행복했지. 난 그가 정말 삶을 사랑한다는 것을 늘 느낄 수 있었어.....
..... 우리는 함께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어. 인생에 뭐 별거 있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일어나고 같이 자고. 그게 다야, 혜영아. 그게 진정한 행복이야...”

남자 친구의 죽음 후 로진은 스페인의 야곱의 길을 떠났다. 하루는 걷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앉아 햇볕을 쬐고 있을 때 로진 곁으로 온 남자 친구의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불어온 바람 속에서 일 것이다. 바로 이때 로진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다고 한다.

내가 로진의 집을 방문 했을 때가 그녀의 남자 친구가 떠나간지 7 년이 다되어간 해였다. 여전히 로진은 거이 30년을 같이 보낸 그녀의 사랑을 잊을 수 없어했다. 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니? 우리가 함께한 그 날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었다.

20대에 만나서 40대 중 후반까지 쭉 같이 살아온 로진과 그녀의 죽은 남친의 사랑 이야기는 나에 가슴 속에 늘 살아있다.

엘레오노르

헝가리의 국민 작가 니콜라 쇼퍼(Nicolas Schöffer) 의 아내가 되기까지 엘레오노르(Eléonore)에게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시 니콜라를 만났을 때는 이미 결혼을 이미 두 번 했었고 두 번째 남편에게서 낳은 자식도 있었다. 참고로 첫 번째 남편은 인도의 프랑스 대사였고 두 번째 남편은 프랑스의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니콜라와 세 번째 결혼으로 그녀는 정치와 경제를 배우고 마침내 예술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됐다.

엘레오노르의 첫 번째 남편은 십 대때 자기 자신을 아직 발견 못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남자였고 두 번째 남편은 엘레오노르의 문화, 예술 취향에 전혀 관심없는 남자였다.

내가 프랑스에서 엘레오노르를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은 우왕좌왕이었다. 연애의 실패와 작가의 인생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나를 파리에서 재워줬고 내가 정신머리가 제대로 안박혀 있다며 나에게 비난과 질책을 해댔다.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키워야 한다면서 나를 2 년동안 교육 시켰다. 당시 80세가 넘은 넘은 할머니의 비난과 날카로운 논쟁에 난 말을 잃었었다. 지금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고맙다. 아마도 하늘에서 지금은 웃고계시려나?

하루는 엘레오노르가 니콜라를 만나게 된 얘기를 해줬다. “....우리는 같은 정신과 같은 몸이었어... (le même esprit, le même corps)...”

“...파리의 미술관 모임의 친구의 권유로 가기 싫은 전시를 보러 간 거였어. 친구가 다른 나라에서 온 작가이고 응원을 해줘야 한다고 오라고 했지. 그래서 저녁에 미술관에 갔지. 거기서 니콜라의 전시를 본 거야. 이후 저녁 식사 자리에 니꼴라가 내 앞에 앉아서 스테이크를 썰어

먹는 데 말이 없더라고. 이후 집 방향이 같아서 차로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데 바로 차 안에서 자기 작품 세계를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 당당하게 자기의 예술 세계와 시공간성의 중요성을 피력했어. 그러면서 우리의 대화가 시작됐지..... 난 수 많은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새벽까지 얘기했지.. 아침이 되서야 난 그에게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들어가서 아침을 차려줘야 한다고 내렸어..."

"...그리고 나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니꼴라가 아뜰리에 와서 자기가 작품을 만드는 걸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찾아갔는 데 그가 아뜰리에를 방문해서 조각을 만지는 그 광경은 아름다웠어. 이후 몇 번 아뜰리에를 방문을 했고 어느 날 조용히 나에게 자기 아뜰리에에 방이 있는 데 들어와서 같이 지낼 생각이 없냐고 그러더라고. 사실 난 두 번째 남편하고는 사이는 좋지는 않았지만 거절을 했지. 당시 니꼴라도 아내가 있었어..."
".. 실망을 하고 알았다고 하더라고.. 이 후 우린 연락을 안했고 난 결국 두 번째 남편하고도 이혼을 했어. 그리고 이혼의 괴로움을 치료하기 위해 인도 악기를 연주하며 6 년이 넘게 조용히 명상을 하며 혼자 시간을 보냈어.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니꼴라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거야. 사실 당시 프랑스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풍속이 아니거든. 이상하더라고... 니꼴라가 전화를 받았는 데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연락할 처지가 아니라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 난 알았다고 하고 끊었어...."

결국 니꼴라의 아내는 죽게 되었고 엘레오노르는 이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후 폐가 안좋아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서 보호자로 니꼴라를 연락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병원에서 연락받은 니꼴라는 엘레오노르를 자기 집에 데려오게 되었다. 당시 집에는 니꼴라의 죽은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러 전 아내와 연관된 친척이 와 있었는 데 그녀는 엘레오노르를 보자 질투가 치밀어올랐고 니꼴라가 엘레오노르를 돌보는 걸 본 후 결국 헝가리로 돌아가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10년의 공백을 깨고 둘은 결국 하나가 되게 되었다.
이들의 스토리는 해피엔딩이었다. 늦게서야 서로를 찾아서 일까? 엘레오노르는 남은 한 평생을 니꼴라의 작업을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었고 니꼴라가 몸이 마비가 되고 휠체어 생활을 한 후에도 평생을 돌봐줬다. 이 후 아뜰리에는 떠나지 않고 여전히 전 세계에 남편의 작업을 대신 전시하였고 니꼴라를 위한 협회까지 만들고 활동하였다. 그녀는 90이 넘게까지 살다가 2020년에 세상을 떠났다.

마래

난 사랑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운명의 상대 또한 믿는다. 우리의 짝을 찾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만큼이나 길고 먼 여정일 수도 있다. 때론 누군가에게는 더 쉬울 수도 있다. 난 이 여정을 도시를 찾는 여정처럼 느껴왔다. 나에게 도시라는 존재는 사람의 존재와도 같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가고자 하는 도시를 꿈에서 발견했다. 그 도시의 시내를 걷고 있는 나를 초등학교 때 꿈으로 봤다. 난 혼자가 아니었고 작은 남자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걷고 있었다. 내 아들이었는지 누군지 모르지만 같이 쇼핑을 가는 듯한 광경이었고 꿈에 나는 기쁨에 가득 차있었다. 처음에 이 꿈을 꾸고 이 곳이 대전 시내의 중심가 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중앙로를 갈 때마다 꿈 속에서 본 곳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결국 발견을 못했다. 꿈의 모든 건 “상징” 이라는 걸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수 년이 지나서 15년 후 꿈 속의 그 작은 아이를 청년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 프랑스로 떠나기 전의 독일에서 꾼 꿈 그와는 같은 방에 있었다. 나의 작은 원룸에 방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를 안았을 때 창문으로 어렸을 적 꿈처럼 햇볕이 가득 들어오면서 부엌

의 식탁을 비추고 있었고 난 초등학교 때 느꼈던 같은 기쁨을 느꼈다.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너무 행복해서 당시 나의 독일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나 프랑스에 가서 살 방을 꿈속에서 봤어. ...”

“진짜? 나에게 알려줘. 어떻게 생겼어?”

“ 침대가 왼쪽에 있고 지붕이 있는 꼭대기 층 방인데 오른쪽에는 부엌과 창문이고 방 한가운데는 탁자야. 근데 내가 혼자가 아니었어.”

“누구와 있었어?”

이 때 나는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너와 있었어.”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내가 독일 남친과 헤어질 것이라는 암시를 느꼈는데 반신반의 했지만, 결국 사실로 들어났다. 난 이후 프랑스가 내 운명의 나라이고 단순히 나이가 어린 남자가 내 사랑이 될거라 믿었다. 자연스럽게도 수 많은 나이가 어린 남자를 지금까지도 만나왔지만 결국 아무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난 점점 이 꿈을 안 믿게 되면서 잊고 살게 되었다.

꿈의 모든 것은 상징인데 이 걸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쉬운일은 아니리라...

진짜일까?
거짓일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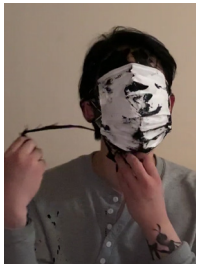
그냥 꿈일지도.... 뭐 일어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젠 정신차리고 남들처럼 결혼을 바라볼 때도 되지 않았나?

어느새 15년이 훌쩍 넘었다.
다시 그를 꿈에서 보게 되었다. 방 안에는 침대가 두 개가 있었다. 한 침대는 다른 침대보다 더 작았다. 그는 작은 침대에 앉아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아이도 청년도 아니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 정장을 입고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괴로워하고 있었다.
내가 다갔을 때 난 두 침대 모두 약간씩 축축하게 적셔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하얀 시트에서 볼 수 있었다. 누가 흘린 눈물 때문인거 같았다.

그리고 자연스레 난 그가 앉아있는 침대에 눕게 되었다. 누우면서 천장을 바라봤을 때 난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그의 눈을 보자마자 난 꿈에서 깨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의 일부를 보게 되었다.
바로 그가 나의 유토피아 (Youtopia)였다.

아마도 내가 찾는 도시는 진짜 존재할지도 모르겠다. 아직 모든 게 끝은 아닌 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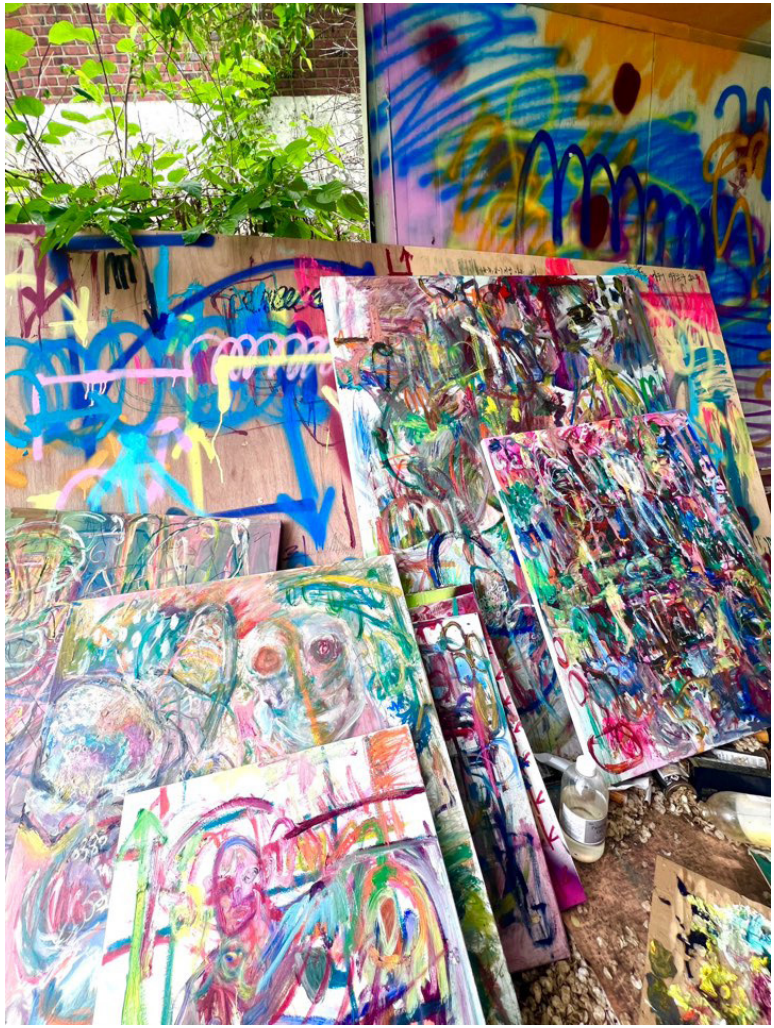
받침 굿

김 희 진
노동자

쓰는 것도 웃기다 쓰기도 전에 이미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자꾸 움직인다고 착각했고 숨 안 쉬고 싶은데 자꾸 숨이 나와서 그걸로 또 하루가 갔다 눈은 떴는데 본 건 없고 본 건 없는데 기억은 있어서 그게 더럽고 껄끄럽고 걸쭉하게 남아서 말도 못 꺼내고 혼자 삼키다 뱉고 다시 주워 삼키고 의식은 시작도 전에 틀어졌고 말은 말이라 부르기도 민망하게 흐물거렸고 마마마맏맏맛맏맛 맛맏맏 다다닫 기도문을 못 외웠고 외우려 하지도 않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흘렸고 그게 내 전부였고 전부라 하기도 민망한 부스러기였고 손은 떨었고 떨린 손으로 아무 데나 찍었고 그게 문장이었고 문장이라기엔 모양도 없고 글자도 틀렸고 결국 글자도 아니고 얼룩이랄지 모르는 침 묻은 종이 위에 눌린 말 같은 거였고 아무도 보지 않았고 보여도 그것이 그것일거라 생각하지 아니했고 그건 처음부터 나를 위한 게 아니었고 남겨두기 위해 쓴 것도 아니었고 없애기 위해 쓰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더럽혀지려고 남긴 거였고 그게 말의 형체를 하고 있었을 뿐이고 말이 아니니까 틀릴 수도 없었고 틀리지 않으니까 부끄러울 이유도 없었고 다만 끝이 없어졌고 끝이 없으니까 아무도 묻지 않았고 묻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 말할 수밖에 없었고 말한 것도 아니고 흘린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누구 하나 치워주지 않아서 굿은 계속됐고 마마마맏맏맛맏맛 맛맏맏 다다닫 다닫닫다 다다다다 다 굿굿굿 다다 다 다 꺼지지 않는 연기처럼 남아 있었고 나도 그 속에 섞여 있었고 섞이다 못해 끈적해졌고 그 끈적한 안에서 말이 아니라 냄새로 눕고 있었고 그렇게 묻힌 채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오늘이 갔다.




Maker's Mark



옛 기록에 이르기를, 천상과 지하 사이,
그 어느 틈에도 속하지 않은 거인이 있어 크기가 하늘 끝까지 이르며 아무리 우러러보아도 끝을 알 수 없으니,
사람이 감히 그 앞에 다가서기를 꺼리고 차라리 이를 두고 절대자라 칭하였다 하더라.
허나 이는 실로 진실이 아니었는데, 그 거인이라 함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그저 크기가 좀 과한 자였을 뿐이며,
위엄이라 여긴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두려움을 빚어 만든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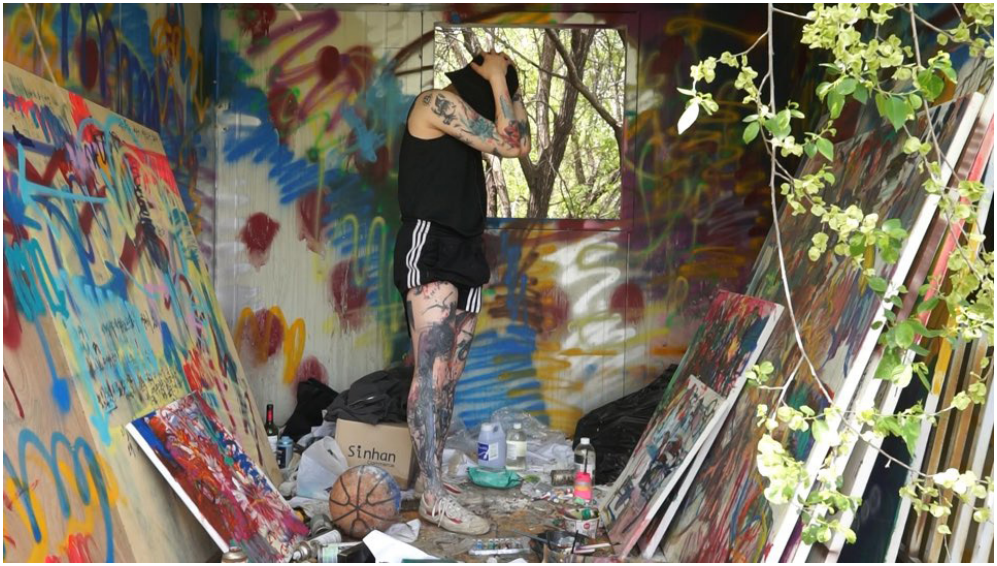
그 몸집이 사람보다 열 곱절 크다 하여
그 뜻 또한 깊을 줄 알았으나,
막상 다가가 보면
그 말은 얕고, 눈은 흔들렸으며,
손짓은 허공만을 더듬었으니,
지혜라기보단 헛된 습관의 잔재에 가까웠다.

그 거인,
자신을 경외치 않는 이를 보고
황망히 팔을 휘저으며 쫓아내고자 하였고,
그 몸짓은 마치
권위의 유효기간이 다한 자가 내지르는 마지막 발악 같았더라.

내가 그 앞에 선 것도
감히 도전하려 함이 아니요,

그저 익사하지 못한 몸으로 되돌아온 것일 뿐인데,
그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내 다리의 수를 보고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더니
다급히 손을 흔들며 외면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른바 절대자라 불리던 이는
실상은
기척의 오류로 과장된 한 시대의 부품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의 신화는
내 앞에서 스스로 기침하며 무너져 내렸더라.
스스로 기침하며 무너져 내렸더라.


Sinhan







남도정식. 남도란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의미하는 말로 이 남쪽 지방의 음식들이 맛있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왔다. 또 경험상 전남과 경남에서 식사를 하고 맛없다고 생각한 적도 그렇게 없다. 광주나 부산이야 익히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남도라는 범주에서 대한민국 남쪽의 요리들을 보통 남도 음식이라고 칭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그 위쪽지방보다 온도가 높아서 그런지, 혹은 바다를 인접한 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남도의 음식은 간이 있다. 그리고 (경험상 경남보다)전남의 음식들이 반찬의 가지수가 많은 편이다. 그런 다양성이 남도 백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이번 글에도 기고하였지만 전남 강진을 방문하여 들린 두 곳의 돼지 불고기 집은 전부다 반찬이 가짓수가 많고 맛도 훌륭했다. 특히나 근래에는 굳이 백반집에 가지 않으면 반찬을 먹기 힘든데 이런 잔 반찬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고등어(혹은 임연수어로 판단되는) 구이에 갖가지 나물들, 그 중에는 요리에 손이 가 평소에 먹기 힘든 무침들도 많았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반찬에다 밥 반공기를 비우는 것이 기본이었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의는 피그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은 무가지이며 온라인, 문화 공간 등에 무료 공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필진을 환영합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5. 6 / 34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그램 DM가능
이번달 참여 필진 : 김희진, 오종원, X, 이채연